

軍, 자살 사망자도 국립묘지 안장해야 조계종 '법률 개정' 찬성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도 '군복무 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보고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조계종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명의로 지난해 12월30일 이같은 의견서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공감한다"며 "특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여 유가족들의 소통 창구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유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임을 공감하여 협조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 23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아이티 참사'

(1면서 계속)

지방사찰 가운데 덕송총림 수덕사(주지 응산스님)가 아이티 희생자에 자비손길을 전했다. 수덕사는 지난 14일부터 본말사 스님과 선원 수좌들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돕기 위한 성금을 실시함으로써 모금하고 있다. 수덕사는 우선 지난 14일 동안 반계재법회 및 포살법회에서 아이티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함께 펼쳐 500만원을 모아 충남도청에 전달했다. 수덕사 주지 응산스님은 "세계일화(世界一花)로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아이티 국민들이 절망의 늪에서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이 많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 상원사 주지 재현스님(종회의원)도 15일 오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이티 참사 자비나눔 기금으로 500만원을 전했다.

종단 차원 모금 (농협 301-0029-6115-71 아름다운동행) 지구촌공생회 캠페인 (기업은행 062-070908-01-011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이성수 · 하정은 기자 이시영 총남지사장 isy@bulgyo.com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發願)으로 3대 기조와 11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제33대 조계종 집행부를 찾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돼, 사회공동선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국민권익위원장 · 복지부장관 · 불교계 NGO

사회 각계인사, 조계종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제33대 집행부의 '발원(發願)'으로 제시한 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조선시대 백성과 직접 소통한 정조대왕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전제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복지관련 각종 기구에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4일 박종기 태백시장을 접견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중국 박봉 도문시 인민정부 부시장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선지서 수월스님이 주석했던 도량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불교계 NGO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단 안과 밖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3대 기조에도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이 들어있어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소통으로 공



불교계 NGO 대표들. 왼쪽부터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스님, 실천승가회 대표 법안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교인권위원회장 진관스님, 민주본 본부장 명진스님, 재가연대 김동진 상임대표 · 좋은벗들 김동균 대표.

'백성과 직접 소통한 정조대왕' 주제 환담 '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불교계 인사 배려' NGO 대표들 '화쟁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사회 공동선' 실현위해 다각적 노력 경주

동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종단의 향후 진로를 가늠케 한다. 지난 13일 전제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위원회에 불교계 인사들이 종단 추천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사회복지 해

경스님과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도 "불교계 대표가 위원회 등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제희 장관은 "공동모금회 등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원변경이나 임원추

매 여러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불교계 NGO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간 종단이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외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화쟁(和諍)위원회 구성을 예로 들면서 "종단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 인권 통일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각종 쟁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NGO 대표들을 화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고견을 청해 듣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다.

총무원장 스님의 이같은 행보는 제33대 집행부의 발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해석된다. 또한 총무원장부더 솔선수범하여 사회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단은 수행종풍 선양과 교육 ·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 근간으로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이라는 3대 기조를 성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 장영섭 기자

동국대 동문 운영 출판사 '꿈틀'

아름다운동행에 1200만원 기부

학습지도 보시하기로

종립 동국대 출신 동문이 운영하는 한 출판사가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 한 출판사가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 1200만원을 기부하고 출판물을 보시기로 했다. 청소년 학습지를 만드는 꿈을담는들(대표 백종민)은 지난 12일 총무원 사회복지부를 찾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동행에 매달 100만원씩 1200만원의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 대표는 "청소년 학습지를 제작해서 얻은 판매수익금으로 기부하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길 바란다"며 "특히 장학금 형태가 아닌,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 꿈을담는들은 지난 2002년 설립된 회사로 당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뜻을 모아서 출판판매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회향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대역서 사회 기부단체에 연평균 1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불교계에는 이렇다할 기부재단이 없어서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

다"며 "아름다운동행과 인연이 되었으니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의 마음을 전해들은 사회복지부 해경스님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토록 멋진 출판사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며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일을 하셔서 벌어들이 수익금을 선뜻 내주시니 감사드리고, 좋은 일에 회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 대표는 "청소년 학습지를 제작해서 얻은 판매수익금으로 기부하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길 바란다"며 "특히 장학금 형태가 아닌,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출판사 꿈을담는들은 지난 2002년 설립된 회사로 당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뜻을 모아서 출판판매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회향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대역서 사회 기부단체에 연평균 1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불교계에는 이렇다할 기부재단이 없어서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

하정은 기자

야생동물 위한 방생 어떨까



현장에서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지난 연말 MBC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멧돼지 사냥을 오락 · 희화화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피해를 끼친 생물은 죽어도 된다'는 생명경시 풍조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멧돼지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며 사냥을 금지하길 바란다. 멧돼지가 산에서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서식지가 도로와 도시 확장으로 단절돼 파편화되고 산이 키작은 식물로 뺏겨지면서 먹이활동이 불편해지고 먹이인 도토리나 꾀을 사람들이 빼앗아 먹어, 멧돼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을을 기웃거리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사찰생태연구소가 긴급제안한 '폭설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리자'는 구호는 설득력을 얻는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겨울철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전

국 곳곳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쌓인 눈들이 봄까지 녹지 않아 멧돼지, 너구리, 고라니, 노루 등과 각종 산새들이 아사(餓死) 직전에 놓였다. 연구소는 '실천강령'까지 함께 제시했다. 장소는 가능한 등산로에서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 좋고 사찰이나 암자 주변이 좋다. 야생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옥수수, 기름기 있는 곡식과 씨앗은 작은 산새들이 잘 먹고 나무에 쇠고기 지방부분을 도려내서 매달아 놓아도 좋다.

오는 2월 말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사찰마다 방생순례를 떠난다. 올해는 눈 속에 파묻혀 배고파 죽어가는 야생동물에게 밤 주는 방생을 떠나라 어떨까.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 · 편입생 모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승가대학에서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사교과 00명 / 사집과 00명 / 치문과 00명
- 모집기간** 2010년 3월 01일(월, 음.1.16) ~ 3월 31일(화, 음.2.14)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각 2부
 - 2) 은사스님 추천서 각 2부
 - 3) 건강진단서(종합병원) 2부
 - 4)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2부
 - 5)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사본 2부
 - 6) 사진(만의복장, 3×4규격) 4장
 - 7) 승가대학 학력 이수증명서(전입생, 편입생 해당)

※서류양식은 범어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복사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beomeo.kr>)
- 준비물** 대가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형** 서류심사, 면접
- 문의처** 범어사 승가대학 051)508-3127 / 범어사 종무소 교무국 051)508-3122~5
- 교통편** 부산 노포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지하철 1호선 노포동 역(승차) → 1구간(2분 소요) → 범어사 역(하차) 5,7번 출구 → 범어사행 시내버스(90번) 수시운행(운행간격 15분)



범어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여산 정여 · 범어사승가대학 학장 초해 용학